

불안의 또다른 해결책, 예술

The Art, Another Solution of Status Anxiety

서예원(Suh, YeWon)*

Alain de Botton(2005). 불안. (정영목 역). 도서출판 이레. (원저출판 2004).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지난 2년의 시간은 충격과 혼돈 그 자체였다.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삶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암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몰아넣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즈음, 그 불안의 실체를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서고에 꽂혀 있는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다시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안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코로나 19나 흑사병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안은 아니지만 알랭 드 보통은 ‘사회적 관계’로 생겨난 불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알랭 드 보통은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작가이다. 여행, 사랑이나 예술에 대한 그의 전작을 알고 있기에 그가 불안을 어떻게 풀어어나갈지 궁금했다.

이 책의 원제목은 ‘Status Anxiety’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책의 첫부분에서 그는 지위를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Alain de Botton 저, 정영목 역, 2005, p. 7)’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이러한 불안의 원인으로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그 해법으로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등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가 책에서 제시한 불안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불안의 원인

저자는 불안의 첫 번째 원인으로 사랑결핍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뿐 아니라 높은 지위로 인해 얻게 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저자가 말하는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앞의 책, p. 16)’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세상이 주는 사랑은 애인과의 사랑만큼 강열하고, 복잡하고, 중요하고, 보편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성적인 사랑, 애인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이 있지만, 누구

* 청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nikia@cje.ac.kr

나 높은 지위 즉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불안의 두 번째 원인은 속물근성이다. 여기서 속물은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앞의 책, p. 28)’을 의미하다가 ‘노골적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앞의 책, p. 29)’을 의미하게 되었다.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속물의 일차적 관심은 권력이며,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속물의 존경 대상도 바뀌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있는 사람이 되려 하거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그와 같은 계급이 되려고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지위에 대한 욕망은 세대가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지위의 상징들을 갈망하면서 괴로움에 떨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불안의 원인은 기대이다. 서양문명 2,000년의 장점은 부, 식량, 과학지식, 소비 물자, 신체적 안전, 기대 수명, 경제적 기회 등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의 수준이 높아졌다(앞의 책, p. 56). 즉 자리, 성취, 수입에 대한 걱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준거집단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느낄 때에만 사라지고 평온함을 느낀다. 저자는 행복의 수준을 결정할 때 기대의 역할을 강조한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무제한의 기대를 갖게 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안이 커진다고 하였다. 적은 것을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불안의 원인은 능력주의이다. 능력주의가 중세 이후에 ‘능력이 있으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반면, 그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감정을 주게 되는지, 이러한 현상이 인간에게 어떠한 잔인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능력이 사회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즉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 낮은 지위에 놓이고 자존심과 결부된 낮은 지위는 감정적으로 개인을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다섯 번째 불안의 요소는 불확실성이다. 부와 지위라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신분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무자비한 경제 내에서 거두는 성과에 달려 있다.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움직이는 경제 속에서 우리는 그 시기에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운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를 고용해주는 고용주에 따라 변한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불안의 요소이다.

2. 불안의 해결책, 예술

예술은 삶의 비평

저자는 이러한 불안의 해결책으로 철학,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해결책으로 ‘예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게 예술은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에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이다. 그는 매슈 아놀드의 입을 빌려 예술은 삶의 비평(또는 통찰)(앞의 책, p. 174)이라고 이야기 한다. 예술 작품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항의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고통을 이해하거나 감수성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돕고, 감정이입 능력을 길러

주고, 슬픔이나 웃음을 통하여 도덕적인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술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허영과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으나 예술 작품은 은근히 또 재미있게, 익살을 부리기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설명해주는 매체 역할을 한다. 예술 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예술의 역사는 사회적 지위와 배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을 창조해왔다. 예술의 역사는 지위의 체계에 대한 도전, 풍자나 분노가 서려있기도 하고, 서정적이거나 재미있기도 한 도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예술은 속물적 관념을 교정

저자는 예술작품은 세상에서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속물적 관념을 교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다. 제인오스틴을 비롯해서 많은 작가의 소설은 감추어진 삶의 목격자이고 지배적인 위계 관념에 상상의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설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표준 렌즈, 즉 부와 권력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는 렌즈를 인격의 특질을 확대해 보여주는 도덕적 렌즈로 바꾼다는 것이다.

회화에서도 미술작품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교정할 수 있다. 로마의 신전이나 르네상스 교회의 현란한 매력에는 눈이 쉽게 가지만, 평범한 지붕에 눈이 가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미술작품은 일상생활을 묘사함으로써 무시당해온 광경을 우리 눈앞에 들어 올려 그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저자는 장밥티스트 샤르댕, 토머스 존스, 크리스텐 콰이크 등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여름날 저녁의 하늘, 햇볕에 달구어진 얽은 벽, 환자를 위해 달걀 껍질을 까는 미지의 여자 등 일상생활을 묘사한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은 우리가 평소에 열망하고 존중해온 속물적 가치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비극을 통해 실패에 공감

저자는 ‘오이디프스 왕’과 같은 비극을 본 관객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그 일에서 실패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진다고 말한다. 실패자와 패배자의 이야기를 하는 신문과는 정반대로 비극은 죄 지은 자와 죄가 없어 보이는 자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이며, 책임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고, 인간이 수치를 당한다 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까지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면서 그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해낸다. 즉 비극은 실패나 패배에 대한 단순화된 관점을 버리게 하고, 우리 본성의 우둔과 일탈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희극을 통해 비판, 교훈을 전달

저자는 유머, 농담이 비판의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오만, 잔혹, 허세에 대하여, 미덕과 양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머는 불만을 제기하는 데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겉으로는 즐거움만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은근히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농담은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직접 말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지금보다 나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성과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남을 질투하거나 지금보다 낮은 지위로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안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생한다. 저자는 예술작품을 통해 높은 지위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삶에서도 기쁨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모습이나 풍광을 통해, 비극과 유머를 통해 높은 지위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한다. 사랑과 존중을 받고자 하는 불안요소들은 예술을 통해 바뀔 수 있다. 예술작품은 편협한 시각을 교정하며 타인에 대한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삶을 통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